

## 주기적 감사인 지정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DD모형의 발생액의 질을 중심으로

문태형\*

목원대학교 경영학과 조교수

### Impact of Periodic Auditor Designation on Audit Quality: Focusing on the Quality of Accruals in the DD Model

Tae-Hyoung Mun\*

<sup>1</sup>Assistant Professor,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Mokwo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최근에 시행된 주기적 감사인지정제의 주기적으로 지정된 감사인이 감사품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선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가설을 설정하고, 코스피상장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과 2020년의 980개의 표본을 선정하였다. 종속변수는 Dechow & Dichev(2002)의 발생액의 질을 사용하였으며,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 여부와 Big4 감사인 여부에 따른 영향을 실증분석한다. 분석결과, 상관관계분석결과에서 종속변수 발생액의 질과 독립변수 지정 감사인 여부(PA)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회귀분석모형 1의 분석결과, 지정 감사인 여부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제변수들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추가적인 분석에서 Big 4 감사인에 따른 감사품질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실증자료를 사용하여 2019년과 2020년의 도입된 시점 이후의 주기적 지정 감사인 기업의 선정과 감사품질의 영향을 연구한 연구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정부의 지정기업 비공개로 인하여 본 연구자의 공시된 선정기준에 의한 선정과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한계가 있다.

**키워드** : 주기적 감사인 지정, 발생액의 질, 감사인 지정, 감사품질, Big 4 감사인

**Abstract** This study's purpose is to verify how the periodically designated auditor in the recently implemented periodic auditor designation system affects audit quality. In this study, hypotheses were established by reviewing previous studies, and 980 samples of 2019 and 2020 were selected for KOSPI-listed companies. Dechow & Dichev (2002)'s accrual quality was used as the dependent variable, and the effect of whether or not a company was periodically designated as an auditor and whether or not a Big 4 auditor was selected was empirically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and correlation analysi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as confirmed in the quality of the dependent variable accrual and the independent variable designated auditor (PA). However, as a result of the regression analysis model 1, it was found that the designated auditor was not significant, but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ontrol variables. Further analysis confirmed the difference in audit quality according to the Big 4 auditor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is a study that uses empirical data to study the effect of audit quality and the selection of regularly designated auditor companies after the introduction in 2019 and 2020. Due to the non-disclosure of government-designated companies, there is a limit that there may be a difference from the selection based on the researcher's published selection criteria.

**Key Words** : The periodic auditor accreditation, The quality of accruals, Auditor accreditation, Audit quality, Big 4 auditors

\*Corresponding Author : Tae-Hyoung Mun(mungini@mokwon.ac.kr)

Received December 23, 2022

Accepted April 20, 2023

Revised January 17, 2023

Published April 28, 2023

## 1. 서론

우리나라는 2019년부터 주기적 감사인지정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주기적 감사인지정제는 기업이 감사인을 6년간 동일한 회계법인을 선임하면 이후 3년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게 되는 제도로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품질을 개선하고자 新외감법을 개정하여, 주권상장법인 및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를 대상으로한 주기적 감사인지정제를 도입하였다. 그동안 기업이 회계법인을 오랫동안 자율적으로 선임하면 부실감사로 이어질 수 있고, 기업과 감사인의 교착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sup>1)</sup>

따라서 본 연구는 외부감사제도의 신뢰성과 감사품질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기적 감사인지정제도가 감사품질 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발생액의 질을 이용하여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독립적인 제3자인 감사인이 재무제표를 감사함으로써 재무제표에 존재하는 정보위험을 제거한다면 재무제표의 신뢰성은 제고될 수 있다[1]. 이 과정에서 재무제표의 신뢰성은 감사품질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외부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라도 감사품질이 높지 않다면 재무제표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부정이나 왜곡을 제거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외부감사인의 독립적인 감사활동은 재무제표에 존재하는 정보위험을 제거함으로써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이는 감사품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분식회계사건<sup>2)</sup> 등을 비롯한 여러 분식회계 사건을 보더라도 외부감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재무제표의 신뢰성 및 감사품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2; 3; 4; 5].

재무제표의 왜곡은 자본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자본시장에서의 회계정보의 감사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 중에서 감사인의 독립성은 감사품질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감사인지정제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감사인지정제는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기업의 감사인을 기업이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

사인을 선임하는 제도이다. 감사인지정제는 외부감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감사인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해 1989년에 도입되어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어 시행되어 왔다. 2014년 개정된 외감법에 따라 감사인지정제도가 확대되어 현재까지도 적용되고 있다. 감사인 지정사유<sup>3)</sup>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증권위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게 된다. 자유선임에 의해 선임된 외부 감사인은 감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감사수수료를 피감사기업으로부터 받고 있는 상황에서 피감사기업과의 관계에서 독립성을 유지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사의견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반면에 금융당국에서 지정한 감사인은 감사위험으로부터 감사인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재무제표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KOSPI 시장의 기업을 대상으로 6년동안 동일 감사회계법인인 기업에 2019년과 2020년에 변경된 기업을 주기적 감사기업으로 선정하고, 분석에서 많이 사용되는 재량적 발생액의 측정오차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발생액 질(Dechow & Dichev, 2002)을 이용하여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감사품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한다.

본 연구는 동일 감사인에 의해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의 감사를 받고 2019년에 변경,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의 동일 감사인에서 2020년도에 변경된 감사인을 가진 기업을 주기적 감사인지정 기업으로 본 최초의 실증자료를 사용한 연구로 본 제도의 시행전에 실증연구한 기존의 선행연구들과는 차이를 보인다.

## 2. 선행연구

### 2.1 주기적 감사인 지정

한국은 주기적 감사인지정제를 2019년에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6년간 외부 감사인을 선임한 후, 이후 3년간은 금융위원회 산하의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품질을 개선하고자 新외감법을 개정하여 주권상장법인 및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에 대해 주기적 지정제를 도입하였다. 그동

1) 2020년 감사인 주기적 지정예상 상장사 현황(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9.6.12)

2) 2010년-2015년까지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제표를 감사한 안전회계법인은 대우조선해양이 5년간에 걸쳐서 5조 5,000억의 분식회계를 했음에도 적정의견을 제시함.

3) 감사인 지정사유(新외감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안 기업이 회계법인을 오랫동안 자율적으로 선임하면 부실 감사로 이어질 수 있고, 기업과 감사인의 교착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주기적 감사인지정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감사의 투명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었다<sup>4)</sup>. 주기적 감사인지정제로 인하여 감사인의 독립성이 확보될 가능성이 크고, 회계의 투명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민우·정기위(2019)는 감사인의 독립성 제고를 위하여 계속감사기간을 6년으로 제한한 주기적 지정감사제도와 관련하여, 계속감사기간 6년을 기준으로 감사품질의 감소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본바있다<sup>6)</sup>. 실증분석결과, 계속감사기간과 감사품질 간에는 역U자형의 비선형적 관련성이 존재함을 발견하였으며, 계속감사기간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전환되는 시점은 2차 감사계약기간인 6년 이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sup>6)</sup>. 한편 금융감독원은 매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현황 및 감사인 지정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한 후 그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18년말 현재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31,473사로 전년(29,263사) 대비 2,210사(7.6%) 증가하였고 외부감사대상 회사의 판단 기준(자산총액) 상향조정의 영향으로 추측했던 2015년을 제외하곤 최근 5년간 증가율이 7%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sup>5)</sup>. 금융감독원은 2017년과 2018년도에 외부감사인 지정비율을 공시하였다. 2018년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회계법인)을 지정한 회사가 699사로 전년 대비 153사 증가(28.0%)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롭게 개정된 외감법에 따라 지정사유 추가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수는 증가하고 있다. 2018년도에는 전체 외부감사대상 회사 중 지정회사 비율은 2.2%에 해당하는 회사가 감사인을 지정하였으며, 이 중 상장예정법인은 217사, 감리결과 조치를 받은 회사는 146사였다. 상장법인의 경우 지정비율은 12.7%로 나타났다.

## 2.2 선행연구

DeAngelo(1981)는 감사품질을 감사인이 감사대상 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부정 및 오류를 발견할 확률과 발견된 오류가 보고될 확률의 결합확률로 정의한다<sup>2)</sup>. 감사품질은 직접관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행연구들

은 감사품질의 대용치를 사용한다.

주기적 지정감사제도는 계속감사기간과 감사품질의 관련성에 근간을 둔 제도로 6년간의 자유수임 이후 3년간 지정감사를 받도록 강제된 것으로 동일 감사인에 의한 계속감사기간을 6년으로 제한하고 있다<sup>6)</sup>. 이는 계속감사기간이 길어질수록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sup>7)</sup>. 감사기간과 감사품질에 대한 연구는 감사인의 학습효과를 주장하는 긍정적 견해와 감사기간이 길어질수록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부정적 견해로 양분된다. 감사초기에는 기업고유정보의 부족으로 부정과 오류를 발견하는 능력이 낮을 수 있으나 감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학습효과로 인해 감사품질이 증가한다는 견해이다. 임영덕(2006)은 계속감사기간이 길수록 재량적 발생액이 줄어든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으며<sup>8)</sup>, 이영한 등(2010)도 계속감사기간과 재량적 발생액 간의 (-)의 관련성이 Big 감사인보다 Non-Big 감사인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남을 보고하였다<sup>5)</sup>. 이러한 연구들은 감사기간이 길어질수록 감사품질에 학습효과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부정적인 견해로 DeAngelo(1981)는 감사인에게 있어 계속감사기업은 연구연금을 제공하므로 감사인의 경제적 의존도를 증가시켜 감사인의 독립성에 훼손을 한다고 주장 했다<sup>2)</sup>. 또한 Famer et al., (1987)등도 계속감사기간이 길어질수록 감사인과 감사대상기업간의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으며, 감사인이 나태해짐에 따라 전문가적 의구심도 감소한다고 주장한다<sup>4)</sup>. 이는 전임감사인의 계속감사기간이 길수록 감사위험을 높게 평가하여 감사품질을 높이는 노력을 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Big4라고 해서 회계정보의 질이 좋아진다는 실증결과가 일관되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회계정보의 질로 사용된 재량적 발생액의 측정에서 발생한 측정오차의 문제라고 고재민 등(2009)의 선행연구에서도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생액의 질을 회계정보의 대용치로 사용한다<sup>9)</sup>.

고재민 등(2009)은 감사품질의 대용과 발생액의 질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였다<sup>9)</sup>. 회계정보의 질을 재량적 발생액으로 측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측정오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Dechow & Dichev(2002)의 발생액의 질을 회계정보의 대용치로 삼고, 감사품질의 대용치인 Big4 또는 산업전문감사인 여부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였

4) 2020년 감사인 주기적 지정대상 상장사 현황(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9.6.12)

5) 외부감사대상회사 증가율 : 7.7%('14년) → 3.7%('15년) → 8.7%('16년) → 7.9%('17년) → 7.6%('18년)

다[10]. 분석결과 외환위기 이후 기간이면서 Big4나 산업 전문감사인인 경우에만 발생액의 질이 높은 사실을 발견하였고, 감사위험이 높은 경제 환경에서만 의미 있는 감사품질의 대응치로 사용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조태현(2017)은 Dechow & Dichev(2002)의 발생액의 질을 측정하여 1998년부터 2013년까지 Big4 감사인 여부가 피감사인기업의 발생액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Big 4 감사인의 감사품질은 감사인간의 비품질경쟁으로 인하여 다른 감사인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11].

권혁대(2019)는 Dechow & Dichev(2002)의 발생액의 질을 감사위험의 대응치로 사용하여 정보시스템 감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권혁대의 연구에서는 감사시간, 총자산이익률(ROA), 당기순손실(Loss), 감사복잡율(CPX), 감사인유형(Big4), 초도감사 등을 변수로 사용하였다[12].

노기팔(2022)의 연구에서는 감사품질의 대응치로 재량적 발생액을 사용하였으며, 이때 사용된 표본의 수는 3,110개, 2020년을 기준으로 주기적 지정을 1, 아니면 0으로 하는 더미변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주기적 지정제 적용대상기업의 재량적 발생액의 변동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3].

선행연구들은 감사기간과 감사 독립성간에 상충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계속감사기간이 길어질수록 학습효과로 인하여 감사인의 능력이 향상되는 반면, 감사대상기업간의 유대관계로 인하여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 3. 표본 선정 및 연구모형

#### 3.1 표본 선정

본 연구는 한국이 주기적 감사인지정제를 2019년에 최초로 도입하여 시행함에 따라 2019년과 2020년도에 상장된 유가증권 기업들 중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는 기업들로 표본을 선정하였다. 선행연구 이민우·정기위(2019)의 연구도 주기적 감사를 주제로한 실증연구이나 본 제도가 실시되전의 표본을 사용한 실증연구로 본 연구와는 차이를 보인다.

- ① 12월 말 결산법인
- ② 비금융업
- ③ Kis-Value에서 재무자료의 입수가 가능한 기업

- ④ 주기적 감사인 지정기업을 정부는 공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동안 동일 회계법인이었던 기업이 2019년도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동안 동일 회계법인이었던 기업이 2020년도에 다른 감사회계법인으로 변경된 경우를 주기적 지정으로 함

- ⑤ 약 5%의 비이상치 표본 제거

Table 1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의 선정과정을 나타낸다. 시차적 동질성을 확보하고자 12월말 결산법인으로 한정하였다. 제조업 대비 재무제표의 구성항목 및 의미가 상이한 금융업을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재무제표분석에 사용된 재무자료들은 Kis-Value에서 추출하였다. 그리고 6년동안 동일 감사회계법인인 기업은 2019년과 2020년에 변경된 기업을 주기적 감사기업으로 선정 후 분석에 앞서 약 5%이 아웃라이어 제거한 후 최종 표본 총 980개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중 감사인이 변경되지 않은 기업은 735개이며, 주기적 감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245개, 그리고 감사인이 5년내에 변경된 기업은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Table 1. The selection process of the samples

The Selection Process of the Samples	N
KOSPI Targets (2019-2020)	1,548
(-) financial companies that are not settlement companies at the end of December	(168)
(-) Companies that have changed auditing and accounting firms for other reasons	(320)
(-) About 5% of outlier samples	(80)
The finally selected samples	980

#### 3.2 가설의 설정

한국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2019년에 최초로 도입하여 시행을 하고 있다. 이는 기업이 외부 감사인을 6년간 자율적으로 선임하면 이후 3년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는 제도이다. 감사기간과 감사품질에 대한 연구는 긍정적 견해와 부정적 견해로 양분된다. 긍정적인 견해는 감사초기에는 기업고유정보의 부족으로 부정과 오류를 발견하는 능력이 낮을 수 있으나 감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학습효과로 인해 감사품질이 증가한다[5; 8]는 것이며, 부정적인 견해는 계속감사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감사인의 경제적 의존도를 증가시켜 감사인의 독립성을 훼손을 한다[2; 3; 4]고 주장한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2019년과 2020년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을 선정하였으며, 고재민 등(2009)의 연구에서 제안된 측정오차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발생액 질(Dechow & Dichev, 2002)을 이용하여 실증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Dechow & Dichev (2002)의 발생액의 질의 추정치는 DD 모형에 매출액 변동, 유형자산을 추가하여 추정하였다. 고재민 등(2009)의 연구 결과 발생액의 질을 사용한 Big4의 여부는 의미있는 감사품질의 대용치로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발생액의 질을 회계정보의 질의 대용치로 사용하여 주기적 감사 대상이 되는 6년 연속감사 후 지정감사를 받은 경우 발생액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다음과 같이 본 연구의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1] 주기적 감사 대상기업의 발생액의 질은 차이가 있다.

추가로 전통적인 감사품질의 대용치인 Big4의 여부도 추가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2] 주기적 감사 대상기업의 발생액의 질은 Big4 감사인의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다.

### 3.3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가설을 검정을 위해 감사품질의 대용 변수로 재량적 발생액의 질을 사용한다. 재량적 발생액의 추정모형으로 주로 사용되는 Dechow & Dichev(2002)의 DD모형에 절댓값을 취하여 종속변수로 사용한다[10]. 본 연구에서는 Dechow & Dichev(2002)의 DD모형에 따라 종속변수로서 현재 운전자본 발생액(WCA<sub>t</sub>)을 설명 변수로 한다. 그리고 전기, 현재, 미래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현금흐름(CFO<sub>t-1</sub>, CFO<sub>t</sub>, CFO<sub>t+1</sub>) 등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한다.

$$\frac{\Delta WC_{i,t}}{Ave TA_{i,t}} = \alpha + \beta_1 \frac{CF_{i,t-1}}{Ave TA_{i,t}} + \beta_2 \frac{CF_{i,t}}{Ave TA_{i,t}} + \beta_3 \frac{CF_{i,t+1}}{Ave TA_{i,t}} + \epsilon_{i,t} \quad (1)$$

연구모형의 독립변수로는 주기적 감사인 여부, 감사품질의 관련변수와 감사인과 관련 있는 통제변수로 회귀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한다. 식(2)는 가설1을 분석하기 위한 전체모형이며, 식(3)은 가설2를 분석하기 위하여 Big4 변수를 제외한 모형이다.

$$|DD| = \alpha + \beta_1 PA + \beta_2 DR + \beta_3 TA + \beta_4 Loss + \beta_5 Big4 + \epsilon \quad (2)$$

$$|DD| = \alpha + \beta_1 PA + \beta_2 DR + \beta_3 TA + \beta_4 Loss + \epsilon \quad (3)$$

<종속변수 감사품질>

DD : Dechow & Dichev(2002)의 발생액의 질(AQ)에 절댓값을 취함

<독립변수와 통제변수>

PA : 주기적감사터미, 주기적감사이면 1, 아니면 0인 터미변수

DR : 부채비율, 부채총계를 자산총계로 나눈 값.

Loss : 전년도에 당기순손실이면 1, 아니면 0인 터미변수

TA : 총자산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Big 4 : 감사인이 Big 4에 해당되면 1, 아니면 0인 터미변수

감사위험의 독립변수와 이에 대한 통제변수의 선정이유는 다음과 같다.

- ① PA : 주기적 감사인 터미 주기적 감사 대상이면 1, 아니면 0인 터미변수
- ② DR :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은 감사위험이 높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어 감사품질을 더 좋게 해야 한다 [14].
- ③ TA : 총자산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으로 자산이 큰 기업일수록 감사보수가 유의하게 높다. 이 또한 감사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④ Loss : 당기순손실 터미, 전년도에 당기순손실인 경우 기업일수록 감사보수가 유의하게 높고, 감사위험이 증가한다[12]. 또한 감사시간이 증가할수록 감사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

⑤ Big 4 : 감사인이 Big 4의 대형 회계법인인 경우 감사위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아 사용하였다[12]. 재량적발생액(DA)과 Big4 간에 음(-)의 관련성이 나타나고 있지만[15], 감사시간이 증가할수록 감사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인 분석에서 Big4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나 Non-Big4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아 감사대상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2]. 그러나 한국의 선행연구에서는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12].

### 4. 분석결과

#### 4.1 기술통계량 및 상관관계분석

Table 2는 본 연구에서 사용될 종속변수 DD, 독립변수 PA, 통제변수 DR, TA, Loss, Big4의 기술통계량을 나타낸 것이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N	average	median	S. D.	Min	Max
DD	980	0.055	0.034	0.062	0.005	0.540
PA	980	0.250	0.000	0.433	0.000	1.000
DR	980	0.973	0.657	1.791	-21.927	28.177
TA	980	27.081	26.793	1.494	24.199	33.068
Loss	980	0.260	0.000	0.441	0.000	1.000
Big4	980	0.600	1.000	0.491	0.000	1.000

Note: DD : the quality of accruals, PA : periodic auditor, DR : debt ratio, TA : total assets, Loss : net loss, Big4 : Auditor's Big4.

종속변수 DD와 독립변수와 통제변수의 표본수, 평균, 중앙수,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을 나타내고 있다. DD는 기업의 발생액의 질의 값으로 평균값이 0.055., 중앙값은 0.034, 최소값은 0.005에서 최대값 0.540까지의 값을 가지고 있다. PA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여부에 따른 더미변수로 평균값이 0.250, 중앙값은 0.000, 최소값은 0.000에서 최대값 1.000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통제변수들의 Table 2에 제시된 것과 같은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은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분석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변수간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종속변수 DD와 독립변수 PA와 통제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PA, DR, TA, Loss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Big4를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P<0.05의 유의한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독립변수 PA와

통제변수들과 상관관계에 있어서 DD, TA, Loss, Big4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변수들의 다중공선성을 분석한 결과 1.035에서 1.388까지의 값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3. Correlation matrix

	DD	PA	DR	TA	Loss	Big4
DD	1					
PA	-0.061**	1				
DR	0.111***	0.034	1			
TA	-0.101***	-0.085***	0.037	1		
Loss	0.122***	0.078***	0.170***	-0.141***	1	
Big4	-0.035	-0.255***	-0.012	0.482***	-0.122***	1

Notes: 1. \* P<0.10, \*\* P<0.05, \*\*\* P<0.01  
2. refer to Table 2 for other variable definitions

발생액의 질에 있어서 주기적 감사 여부가 보다 세부적으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Table 4와 같이 t-test를 실시하였다. 주기적 감사여부에 따른 발생액의 질에 있어서 주기적 감사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은 평균 0.380, 주기적 감사인 경우는 평균의 0.160의 값을 가지며 두 집단간에는 유의수준이 0.056으로 P<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4. Analysis of differences in the quality of accruals according to periodic audits(t-test)

PA	N	average	S. D.	t
0	735	0.380	0.487	3.656 (0.056)
1	245	0.160	0.366	
All	980	0.250	0.433	

Note: 1 if periodic audit, 0 otherwise.

Table 5는 주기적 감사인여부와 발생액의 질(DD)을 감사품질의 대응치로 하고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다양한 통제변수를 사용하여 다변량 회귀분석하였다. 연구 모형 1(Model 1)의 분석결과, 통제변수 DR, TA, Loss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의 상관관계분석에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발생액의 질(DD)와 독립변수 주기적 감사인여부는 유의수준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다양한 변수를 함께 분석한 연구모형1에서는 다른 변수들이 영향을 미쳐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추가적인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하여 연구모형 2에서는 통제변수를 달리하여 분석하였다. 앞의 상관관계분석에서 독립변수 PA와 선행연구의 주된 통제변수

Big4가 유의수준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연구모형2에서는 Big4를 제외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2의 분석결과, 재량적 발생액의 질(DD)과 PA가 Big4와 Non-Big4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추가적으로 분석한다. 연구모형2에 차이를 미쳤던 Big4를 분석표본수에서 Big4의 584개 표본과 Non-Big4 396로 분리하여 연구모형 2-1과 연구모형 2-2로 분리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Big4의 584개 표본을 분석한 연구모형 2-1의 분석결과, 재량적 발생액의 질(DD)과 모든 변수에 있어서 변수들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Non-Big4의 396개 표본을 분석한 연구모형 2-2의 분석결과, 재량적 발생액의 질(DD)과 모든 변수에서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Big4와는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것과 같이 Big4 감사인과 Non-Big4 감사인의 감사품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이유로는 Big4의 감사인이 Non-Big4 감사인보다 인력 및 보수규모, 경험치 등에서 차이를 가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5.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variables		Model 1 All	Model 2 All	Model 2-1 Big4	Model 2-2 Non-Big4
Int.	t-stat.	4.163	4.045	3.883	1.931
PA	$\beta$	0.052	0.043	0.089**	0.020
	t-stat.	(1.601)	(1.365)	(2.188)	(0.401)
DR	$\beta$	0.098**	0.097***	0.116***	0.083
	t-stat.	(3.052)	(3.031)	(2.826)	(1.627)
TA	$\beta$	-0.108**	-0.089***	-0.114***	-0.074
	t-stat.	(-2.982)	(-2.769)	(-2.817)	(-1.442)
loss	$\beta$	0.091**	0.090***	0.115***	0.065
	t-stat.	(2.816)	(2.768)	(2.805)	(1.256)
Big4	$\beta$	0.042			
	t-stat.	(1.144)			
F		6.974***	8.387***	8.064***	1.981*
adj. R <sup>2</sup>		0.030	0.029	0.046	0.010
N		980	980	584	396

- Notes: 1. t : t-statistics  
 2.  $\beta$  : beta coefficient  
 3. \* P(0.10), \*\* P(0.05), \*\*\* P(0.01)  
 4. refer to Table 2 for other variable definitions

### 5. 결론

한국은 주기적 감사인지정제를 2019년에 최초로 도입

하여 시행을 하고 있다. 주기적 감사인지정제는 기업이 외부 감사인을 6년간 자율적으로 선임하면 이후 3년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을 지정 받는 제도이다. 주기적 감사인지정제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품질을 개선하고자 新의감법을 개정하여, 주권상장법인 및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에 대한 주기적 지정제를 도입하였다.

본 연구는 주기적 감사인지정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2019년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을 선정하였으며, 분석에서 많이 사용되는 재량적 발생액의 측정오차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발생액 질(Dechow & Dichev, 2002)을 이용하여 실증분석한다.

분석을 위해서 한국의 KOSPI 시장의 기업을 대상으로 6년동안 동일 감사회계법인인 기업에 2019년에 변경된 기업을 주기적 감사기업으로 선정하였고 이러한 방법에 따라 2020년에 해당되는 기업도 선정하였으며, 추가적인 표본 선정과정을 거쳐 최종 표본 총 980개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가설1의 “주기적 감사 대상기업의 재량적 발생액의 질은 차이가 있다”는 회귀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설2에서 Big 4 감사인에 따른 감사품질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통제변수에 있어서 DR, TA와 Loss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의 선정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발생액의 질(DD모형)을 사용한 실증자료로 2019년도와 2020년도를 대상으로 한 연구라는 테그 의미가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기관에서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을 공개하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는 공시된 모든 기업의 감사인을 직접 확인하고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하였기에 실제 자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선정과정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본 제도는 2019년도 처음 시행되어 그에 대한 관련 자료가 많이 없기 때문에 관련 연구의 분석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다. 차후 본 제도가 충분히 정착되었을 때 더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REFERENCES

- [1] Hyun-Sun Wang, Hyun-Hee Ki. 2011, A Study on the Audit Quality and Real Earnings Management, *Review of Accounting and Policy*, 16(4), 217-243.
- [2] DeAngelo, L. E., A. 1981, "Audit Size and Audit Quality,"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3(December), 183-199.
- [3] Farmer, T., L. Rittenberg, and G. Trompeter, 1987. An Investigation on the Impact of Economic and Organizational Factors in Auditor Independence,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 7(1), 1-14.
- [4] Sun-Hwa Choi, Jong-Hag Choi, 2008, The Association between the Magnitude of Earnings Management by Client Firms at the First Year with New Auditor and the Tenure of Predecessor Auditor, *Korean management Review*, 37(4), 1097-1124.
- [5] Young-Han Lee, Tae-dong Kim, Sung-hwan Kim, 2010, "The Effect of whether Auditor is Big4 or not and Audit Tenure on Quality of Earnings," *Review of Accounting and Policy*, 15(1), 33-62.
- [6] Minwoo Lee, Chung Ki Wi, 2019, The Effect of Periodic Auditor Designation on Audit Quality Improvement: Focused on auditor independence, *Study on Accounting, Taxation & Auditing*, 61(4), 123-166.
- [7] Joon Hwa Rho, Gil S Bae (2013), The effect of the same auditor appointment by the main firm and the other member firms in a large businessgroup on audit quality, *Korean Accounting Review*, 38(2), 247-282.
- [8] Young Deok Lim, (2006), Auditor Tenure and Audit Quality: Evidence from the Korean Audit Market, *Korean Accounting Review*, 31(3), 183-213.
- [9] Jai Min Goh, Sang Il Kim, Ho young Lee. 2009. The Association between Proxies for Audit Quality and the Quality of Accruals. *Korean Accounting Review*. 34(2), 1-43.
- [10] Dechow, P. M., and I. Dichev. 2002. The Quality of Accruals and Earnings : The Role of Accrual Estimation Errors. *The Accounting Review* 77(Supplement): 35-59.  
DOI : 10.2308/accr.2002.77.s-1.35
- [11] Tae-Hyun Cho. 2017. Audit Quality of Big 4 Auditors as Measured by Accruals Quality. *Korean Business Education Review*. 32(1), 163-185. DOI : 10.23839/kabe.207.32.1.163
- [12] Hyuk-Dae Kwon. 2019. The Influence of Information System Audit Expert Input on Audit Risk. *Journal of Finance and Accounting Information*. 19(4) : 63-79.  
DOI : 10.29189/KAIAJFAI.19.4.4.
- [13] Ki-Pal Noh, 2022. *The Effect of Periodic Auditor Designation on Audit Quality*. Ph.D. thesis from Soongsil University.
- [14] Tae-Hyoung Mun, 2017. A Study on the Audit Times for Each Position and the Audit Risk. *Accounting Information Review*. 35(2) : 143-165.
- [15] Becker, C., M. DeFond, J. Jiambalvo, and K. Subramanyam. 1998, The Effect of Audit Quality on Earnings Management.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15(Spring), 1-24.

문 태 형(Tae-Hyoung Mun)

[정회원]



• 2010년 4월~현재 : 목원대학교 경영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회계, 경영

• E-Mail : mungini@mokwon.ac.kr